

경기

- 서울 산업생산지수 전년동월대비 증가
 - 7월 서울시 산업생산지수는 92.6(2005=100)로 전년동월대비 3.7% 증가
 - 7월 서울 제조업부문 출하, 재고 각각 증가로 의도된 재고조정 단계로 해석할 수 있음
- 서울 대형소매점 판매액 증가, 부문별로 백화점 및 대형마트 각각 증가
 - 7월 서울 대형소매점 판매액은 1조5,090억으로 전년동월대비 12.4% 증가
 - 백화점 및 대형마트의 경우 꾸준히 플러스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음. 이는 여름철 특수로 가전제품 판매 증가로 인한 영향인 것으로 추정됨
- 서울의 7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월대비 소폭 상승
 - 서비스의 경우 전월대비 0.3%, 전년동월대비 2.0% 각각 상승
 - 생활물가지수는 전월대비 0.3%, 신선식품지수는 전월대비 4.7% 각각 상승

고용

- 서울의 경제활동참가율 전년동월대비 상승
 - 서울의 7월 경제활동인구는 전년동월대비 2.7% 증가, 경제활동참가율은 전년동월대비 1.2%p 증가한 62.5%임
- 서울의 7월 취업자수 전년동월대비 증가
 - 7월 서울의 취업자 수는 전년동월대비 151천명(3.1%) 증가한 5,013천명인 것으로 나타남
 - 전년동월대비 남자는 55천명(2.0%), 여자는 96천명(4.6%) 각각 증가
 - 청년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1.7% 감소하였으며, 전국대비(-0.4%) 1.3%p 차이를 보임
 - 60세 이상의 고령층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1.6% 상승하여 꾸준히 플러스 증가세
- 서울의 실업률은 전년동월대비 하락, 고용률은 전년동월대비 상승
 - 7월 서울의 실업률은 4.5%로, 남자는 5.0% 하락, 여자는 3.7%로 보합
 - 7월 서울의 고용률은 59.7%로, 전국의 고용률(59.8%)보다 0.1%p 낮은 수준

부동산

- 서울의 6월 건설수주액 전년동월대비 감소
 - 서울의 6월 건설수주액은 1조 6,523억원으로 전년동월대비 21.9% 감소
 - 공공부문에서는 신규주택 및 도로공사 등의 수주 증가로 전년동월대비 68.0% 증가, 민간부문에서는 사무실 및 재개발 주택공사 등의 수주 감소로 전년동월대비 32.7% 감소
- 서울의 7월 주택매매가격 4개월 연속 하락세 지속
 - 서울(-0.3%)의 주택매매가격은 지난해부터 지속된 금융규제 강화와 보금자리주택, 장기전세주택 공급에 대한 기대감, 재건축 아파트 약세에 따른 매수심리 위축으로 4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감
- 서울의 7월 주택전세가격 강북지역 보합으로 전환, 강남지역 상승폭 축소
 - 서울(0.1%)은 강북지역(0.1%)이 작년 3월 이후 16개월 만에 보합으로 전환, 강남지역(0.1%)도 전국평균을 하회하며 상대적인 안정세를 보임

금융

- 서울지역 6월 대출금 잔액 전월대비 감소
 - 6월말 서울지역 금융기관 대출금 잔액은 514조 5,707억원 규모로 전월대비 0.33% 감소
- 서울의 6월 신설법인 수는 1,871개로 전월대비 12.1%(202개) 증가
- 서울의 6월 부도업체 수는 42개로 전월대비 6.7%(3개) 감소
- 서울의 7월 수출입 전년동월 대비 증가
 - 서울의 7월 수출은 40.9억 달러로 전년동월 대비 33.1% 증가. 수출 1순위는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 다음은 자동차부품, 편직물, 반도체 등의 순
 - 서울의 7월 수입은 89.6억 달러로 전년동월 대비 36.1% 증가. 수입 1순위는 석유제품으로 나타났고 다음은 반도체, 컴퓨터, 항공기 및 부품 등의 순

| 생 · 산 |

서울의 7월 산업생산지수 전년동월대비 증가

■ 서울의 7월 산업생산지수 전년동월대비 증가

- 서울시 산업생산지수는 92.6(2005=100)로 전년동월대비 3.7% 증가
- 업종별로는 기계장비(-36.8%) 등은 감소하였으나, 의복 및 모피(8.4%), 전기장비(47.8%) 등에서 증가

■ 서울의 전년동월대비 중공업 부문 감소, 경공업 부문 증가

- 중공업부문은 전년동월대비 3.0% 감소하며 2개월째 마이너스 증가세 유지
- 경공업부문은 전년동월대비 7.1% 증가하여 5개월째 플러스 성장세 유지

■ 전국의 7월 광공업 생산 전년동월대비 증가

- 7월 전국의 광공업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15.5% 증가
- 부문별로는 선박 등 기타운송장비(-10.6%)는 부진하였으나 반도체 및 부품(27.6%), 기계장비(54.1%) 등의 호조로 증가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남
- 서비스업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부동산임대(-15.6%), 교육(-3.6%), 예술스포츠여가(-0.4%) 등에서 부진하였으나, 운수(13.8%), 보건·사회복지(10.0%), 도매소매(6.6%) 등의 호조로 3.4%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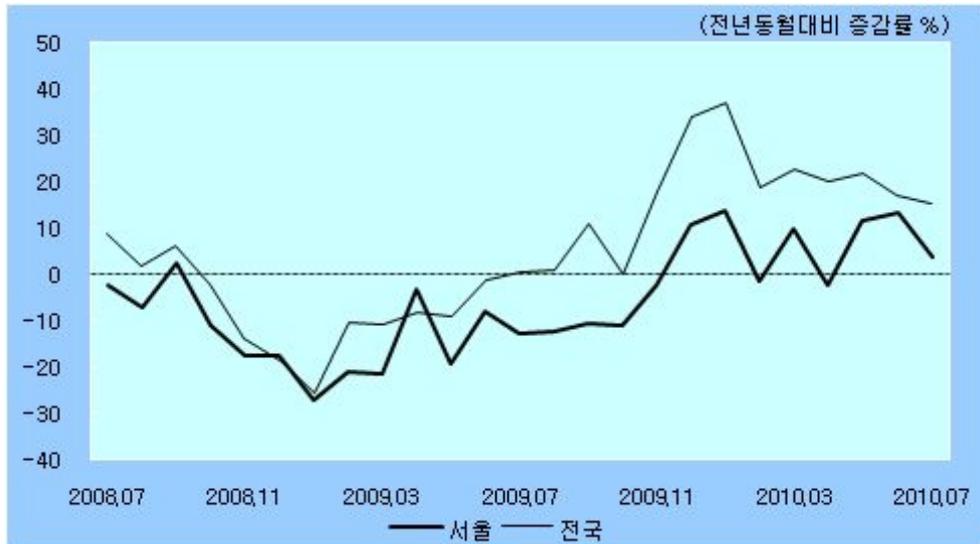
〈표〉 산업생산 증감률 추이

(단위: 전년동월비, %)

구 분	2009년	2010년					
	7월	3월	4월	5월	6월p	7월p	
전 년 동 월 비	서울 (제조업)	-12.6	9.7	-2.5	11.6	13.3	3.7
	중공업	-12.4	15.7	-21.6	0.5	-3.9	-3.0
	경공업	-12.8	7.3	9.5	17.8	24.2	7.1
	전국	0.7	22.7	20.1	21.7	17.1	15.5

주: 통계표의 부호p는 잠정치를 나타냄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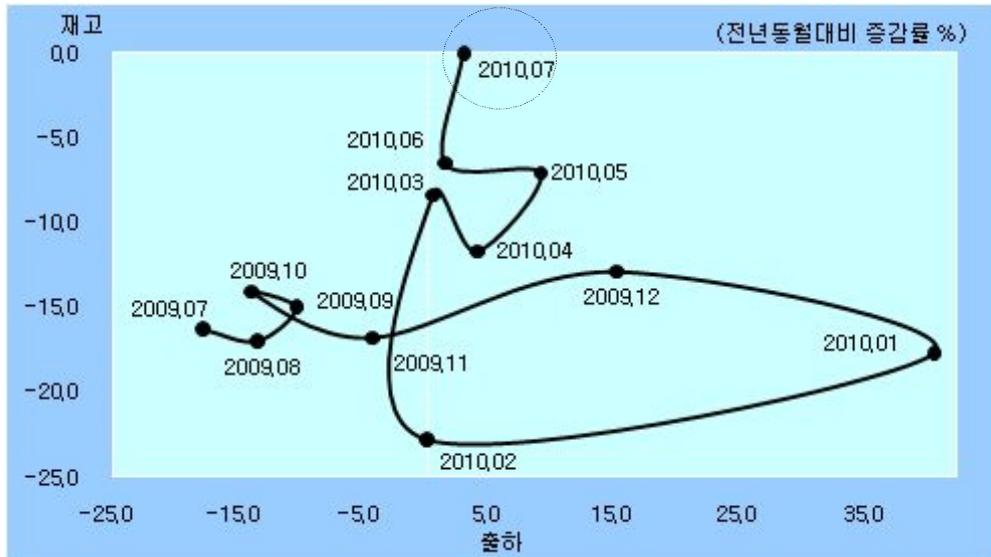
〈그림〉 서울과 전국의 산업생산 증감률 추이

| 출하 · 재고 순환 |

서울 7월 제조업부문 의도된 재고증가 단계

■ 서울의 7월 제조업은 전년동월대비 재고 감소, 출하 증가

- 7월 서울의 재고지수는 151.2(2005=100)로 전년동월대비 0.0%로 보합, 업종별로는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음향통신, 식료품 등은 증가하였으나 섬유제품 등에서 감소
- 출하, 재고 각각 증가하여 의도된 재고증가 단계로 해석할 수 있음(<Box> 참조)



<그림> 서울의 출하·재고 증감률 추이

<Box> 출하·재고 순환 상관표

출하↓	출하↑	출하↑	출하↓
재고↓	재고↓	재고↑	재고↑
재고조정	재고감소	의도된 재고증가	재고누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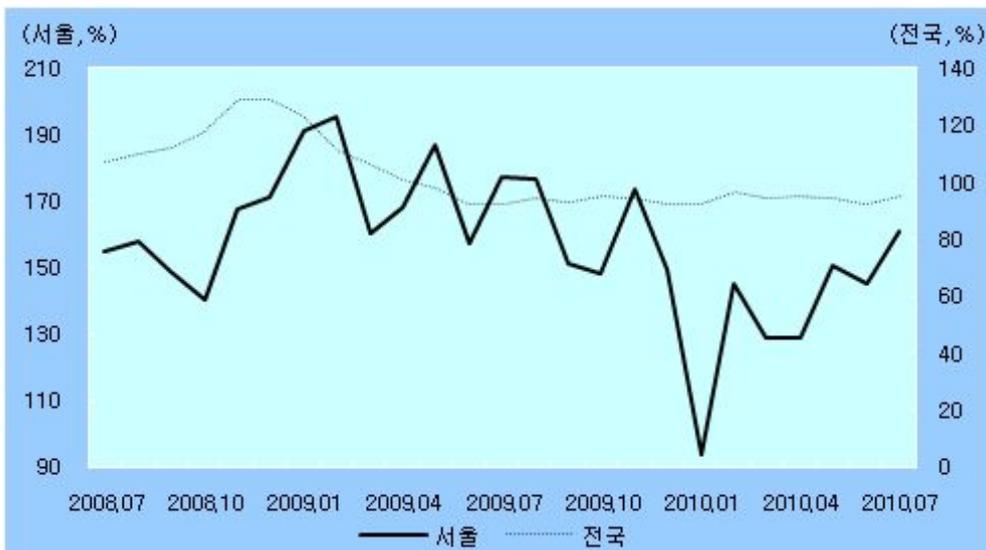
- 서울 제조업부문 전월대비 재고율 증가, 부문별로는 중공업, 경공업 각각 증가
 - 7월 서울 제조업부문 재고율은 165.2%로 전월대비 20.2%p 증가하였고, 전국 제조업부문의 재고율은 95.0%로 전월대비 2.6%p 증가함
 - 서울의 산업부문별 재고율은 중공업부문이 전월대비 29.4%p 증가한 166.9%를 나타냈고, 경공업부문은 15.4%p 증가한 160.8%로 나타남

<표> 서울과 전국의 제조업 재고율 추이

구 분		2009년		2010년			전월대비 증감	
		7월	3월	4월	5월	6월p		7월p
재고율	서울	170.1	146.1	142.8	159.2	145.0	165.2	20.2
	중공업	138.4	183.5	171.1	174	137.5	166.9	29.4
	경공업	177.5	128.8	128.8	150.7	145.4	160.8	15.4
	전국	92.2	94.6	94.9	94.1	92.4	95.0	2.6

(단위: %)

주: 제조업에 대한 재고율 (계절조정재고지수 ÷ 계절조정출하지수) × 100
 서울의 재고율 (재고 원지수 ÷ 출하 원지수) × 100, 통계표의 부호p는 잠정률 나타냄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과 전국의 재고율 추이

| 소 · 비 |

서울의 7월 대형소매점 판매액 전년동월대비 증가

■ 서울의 7월 대형소매점 판매액 전년동월대비 증가

- 7월 서울 대형소매점 판매액은 1조 5,090억으로 전년동월대비 12.4% 증가
- 전년동월대비 백화점 14.5% 증가, 대형마트 10.0%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12.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백화점 및 대형마트의 경우 꾸준히 플러스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음. 이는 여름철 특수로 가전제품 판매 증가로 인한 영향인 것으로 추정됨

■ 전국의 7월 대형소매점 판매액 전년동월대비 증가

- 전국의 7월 대형소매점 판매액은 4조 6,274억으로 전년동월대비 11.7% 증가함
- 백화점 판매액은 전년동월대비 10.9%, 대형마트는 8.3% 증가함
- 유형별로는 가전제품, 컴퓨터·통신기기, 승용차 등의 내구재가 18.1% , 오락, 의복 등의 준내구재 9.4%, 식료품, 화장품 등 비내구재는 3.4% 각각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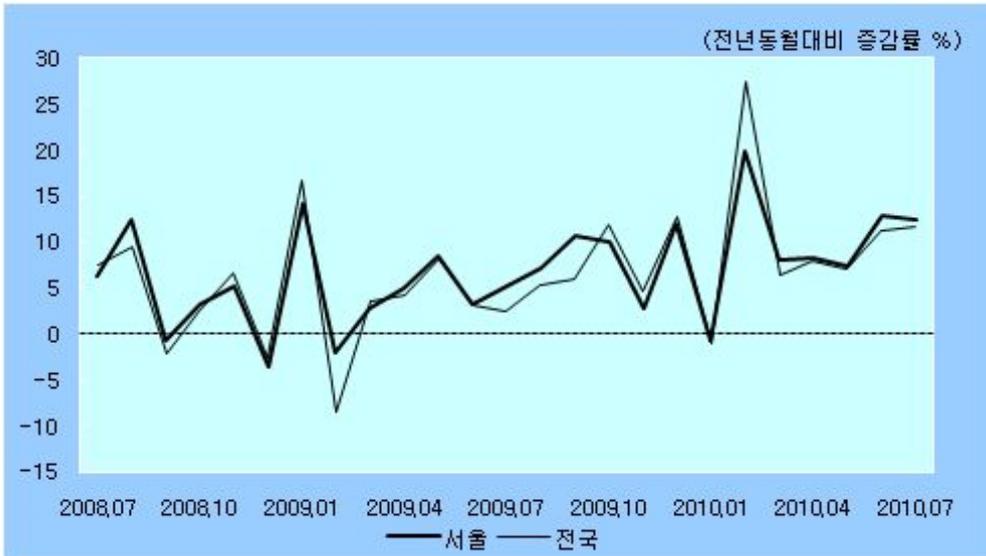
〈표〉 대형소매점 판매 추이

(경상금액, 단위: 십억 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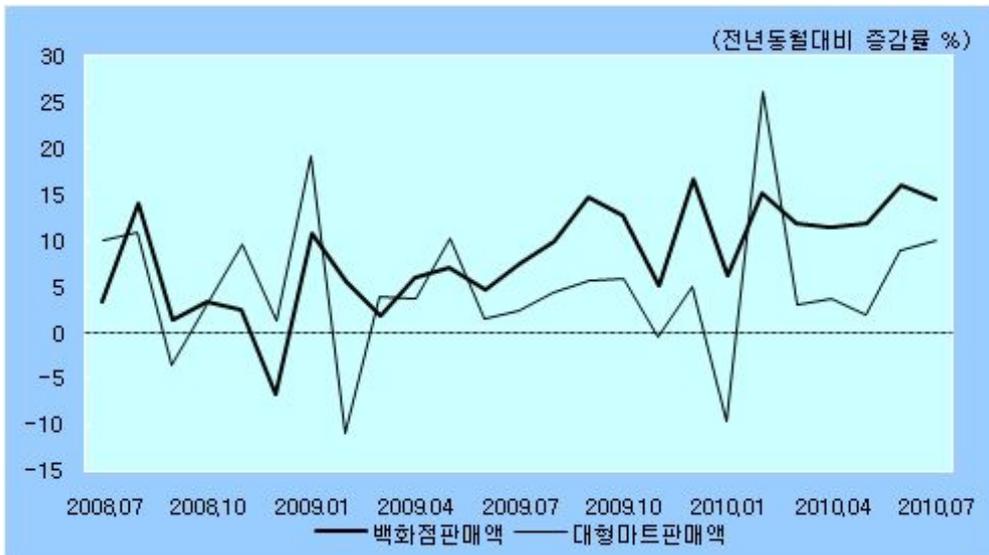
구 분		2009년		2010년			
		7월	3월	4월	5월	6월p	7월p
판매액	서울	1342.2 (5.1)	1521.3 (8.0)	1544.1 (8.2)	1629.2 (7.5)	1535.3 (12.9)	1509.0 (12.4)
	백화점	732.9 (7.6)	886.2 (11.9)	936.6 (11.4)	956.6 (11.8)	887.9 (16.0)	839.0 (14.5)
	대형마트 (할인점)	609.3 (2.3)	635.1 (3.0)	607.4 (3.6)	672.6 (1.9)	647.3 (9.0)	670.0 (10.0)
	전국	4144.1 (2.4)	4586.5 (6.4)	4501.4 (7.9)	4882.9 (7.0)	4529.9 (11.2)	4627.4 (11.7)

주: ()안은 전년동월비임, 대형소매점은 매장면적이 3,000m² 이상인 소매점임.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따라 할인점이 대형마트로 명칭이 변경되었음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과 전국의 대형소매점 판매 추이



<그림> 서울의 대형소매점 판매 추이

| 물 · 가 |

서울의 7월 소비자물가 전월대비 소폭 상승

■ 서울의 7월 소비자물가 전월대비 소폭 상승

- 서울의 7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15.3(전도사:115.9, 2005년=100)로 전월대비 0.3%, 전년동월대비 2.4% 각각 상승
- 상품성질별로 상품의 경우 전월대비 0.6%, 전년동월대비 3.2% 각각 상승, 서비스의 경우 전월대비 0.3%, 전년동월대비 2.0% 각각 상승

■ 서울의 7월 생활물가지수 및 신선식품지수 전월대비 각각 상승

- 소비자들의 기본생활품을 중심으로 한 생활물가지수는 전월대비 0.3%, 전년동월대비 2.4% 각각 상승
- 생선류, 채소류, 과일류를 대상으로 한 신선식품지수는 전월대비 4.7%, 전년동월대비 12.5% 각각 상승

■ 전국 7월 소비자물가 전월대비 하락하여 1개월 만에 다시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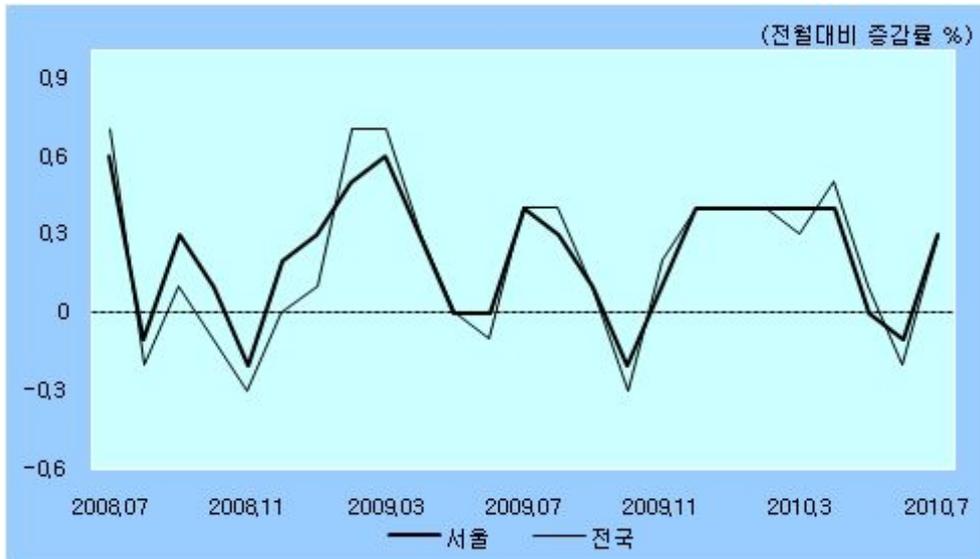
- 전국의 7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15.9(2005년=100)로 전월대비 0.3% 상승함으로써 전월의 0.2% 하락이후 1개월 만에 다시 상승
- 생활물가지수는 전월대비 0.3%, 전년동월대비 2.7%, 전년동기대비 3.1% 각각 상승
- 16개 시도별 전월대비 소비자물가동향을 보면, 서울, 부산 등 16개 시도 모두 0.3~0.6%씩 상승

〈표〉 소비자 물가 동향

(2005=100.0, 단위: %)

구 분		2009년	2010년						
		7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전월비	서울	0.4 (2.3)	0.4 (2.6)	0.4 (2.3)	0.4 (2.5)	0.0 (2.5)	-0.1 (2.4)	0.3 (2.4)	
	상품 성질별	상품	0.5 (2.2)	0.3 (3.3)	0.6 (2.8)	0.9 (3.2)	-0.3 (3.1)	-0.3 (3.2)	0.6 (3.2)
		서비스	0.4 (2.3)	0.4 (2.2)	0.3 (2.1)	0.2 (2.1)	0.2 (2.2)	0.0 (2.1)	0.3 (2.0)
	생활물가	0.4 (1.3)	0.4 (3.3)	0.5 (2.9)	0.5 (2.7)	-0.3 (2.6)	-0.4 (2.5)	0.3 (2.4)	
	신선식품	1.7 (8.8)	3.1 (6.0)	5.0 (7.8)	6.2 (10.5)	-4.2 (7.9)	-7.3 (9.3)	4.7 (12.5)	
	전국	0.4 (1.6)	0.4 (2.7)	0.3 (2.3)	0.5 (2.6)	0.1 (2.7)	-0.2 (2.6)	0.3 (2.6)	

주: ()안은 전년동월비임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과 전국의 소비자물가 추이(2005=100)

■ 서울의 8월 신선식품 중 배추, 무, 마늘 등의 채소류 가격 상승

- 소비자들의 52개 생활필수 품목 중 신선식품의 전월대비 가격동향은 채소류의 경우 평균 2.87% 상승, 나머지 양곡과 수산물의 경우 평균 2.22% 하락
- 청과류 중 배추는 전월대비 7.0%, 무는 22.26%, 마늘은 8.64% 각각 상승, 그 외 파(-21.91%), 양파(-1.76%) 각각 하락

〈표〉 신선식품 가격동향

(단위: 전월비, 원, %)

구분	5월	6월	7월	8월	증감율	
양곡	42,206	41,831	41,901	42,143	0.57	
수산	멸치	2,410	2,415	2,574	2,463	-4.51
	고등어	3,000	3,000	2,568	2,500	-2.72
채소	배추	2,027	1,872	4,560	4,903	7.00
	무	2,027	1,872	2,231	2,870	22.26
	파	3,029	3,052	2,820	2,315	-21.81
	양파	1,807	1,553	1,620	1,592	-1.76
	마늘	6,794	6,982	9,787	10,713	8.64

주: 52개 생활필수품목 중 신선식품만 선별하여 가격동향을 살펴보았음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단위: 전월대비, %)



주: 멸치(건멸치), 고등어(중품), 배추(고랭지(상품), 봄(상품)), 무(봄(상품)), 파(대파(상품)), 양파(상품), 마늘(깐마늘(상품)) 가 기준

〈그림〉 서울시 농수산물 시장의 월간 등락품목

| 경 · 제 · 활 · 동 · 인 · 구 |

서울의 7월 경제활동참가율 전년동월대비 상승

■ 서울의 7월 경제활동참가율 전년동월대비 상승

- 7월 15세이상 인구는 8,390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62천명(0.7%)이 증가하였으며, 경제활동인구는 5,246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39천명(2.7%)이 증가
- 경제활동참가율은 62.5%로 전년동월대비 1.2%p 상승하였으며, 남자는 73.6% 여자는 52.0%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가사 또는 통학 등으로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않은 비경제활동인구는 3,144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77천명(-2.4%)이 감소

■ 전국의 7월 경제활동참가율 전년동월대비 증가

- 전국 7월 15세이상인구는 40,615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90천명(1.2%) 증가하였으며, 경제활동인구는 25,232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77천명(1.9%) 증가
- 성별로 보면 남자는 14,713천명으로 219천명(1.5%) 증가하였으며, 여자는 10,519천명으로 258천명(2.5%) 증가
- 경제활동참가율은 62.1%로 전년동월대비 0.4%p 상승

〈표〉 경제활동인구

(단위: %)

구 분		2009년	2010년					
		7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경제활동인구	서울	-1.2 (-0.3)	2.2 (0.2)	0.8 (0.2)	2.0 (1.5)	2.3 (0.5)	1.7 (-0.1)	2.7 (0.7)
	남자	-1.0 (-0.4)	1.5 (-0.1)	0.6 (0.3)	1.4 (0.9)	0.4 (-0.3)	0.1 (0.2)	1.3 (0.8)
	여자	-1.4 (-0.2)	3.2 (0.6)	1.2 (0.1)	2.8 (2.3)	5.0 (1.5)	3.8 (-0.5)	4.6 (0.6)
	전국	0.3 (-0.7)	1.6 (-0.2)	1.3 (1.4)	1.6 (2.0)	1.8 (1.0)	0.9 (0.2)	1.9 (0.3)
경제활동참가율	서울	61.3	61.0	61.1	62.0	62.2	62.1	62.5
	남자	73.1	72.4	72.6	73.2	73.0	73.1	73.6
	여자	50.2	50.2	50.2	51.3	52.1	51.8	52.0
	전국	61.7	59.5	60.3	61.4	61.9	62.0	62.1

주: ()안은 전월비임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 취 · 업 · 자 |

서울의 7월 취업자 전년동월대비 증가

■ 서울의 7월 취업자 전년동월대비 증가

- 7월 취업자는 5,013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51천명(3.1%)이 증가
- 성별로 보면, 남자는 2,849천명, 여자는 2,164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남자는 55천명(2.0%), 여자는 96천명(4.6%)이 각각 증가
- 산업별로 보면, 전년동월대비 농림어업 2천명(30.4%), 건설업 46천명(13.1%), 제조업 29천명(5.6%),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62천명(3.3%), 전가운수·통신·금융업 23천명(3.1%)이 각각 증가한 반면, 도소매·음식숙박업 9천명(-0.7%)이 감소
- 청년층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1.7% 감소하였으며, 전국대비(-0.4%) 1.3%p 차이를 나타냄
- 60세 이상의 고령층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10.6% 상승하여 꾸준히 플러스 증가세를 이어감

■ 전국의 7월 취업자 수 전년동월대비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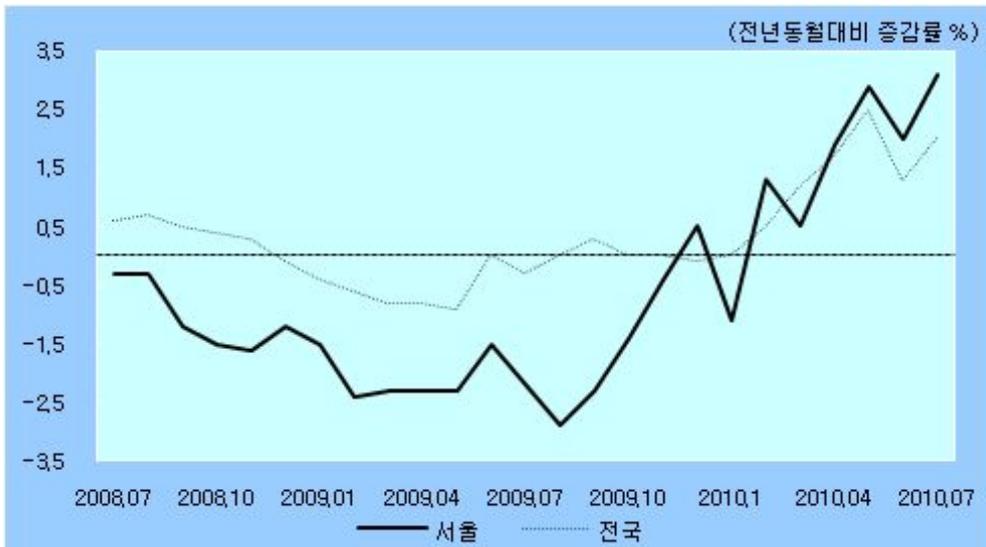
- 전국의 7월 취업자는 24,301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73천명(2.0%) 증가
- 성별로 보면 남자는 14,116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40천명(1.7%) 증가하였고, 여자는 10,185천명으로 233천명(2.3%) 증가
- 연령계층별로 보면 20대는 감소한 반면, 그 외 연령계층에서는 증가
- 청년층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0.4% 감소, 고령층 취업자 전년동월대비 3.4% 증가

〈표〉 연령별 취업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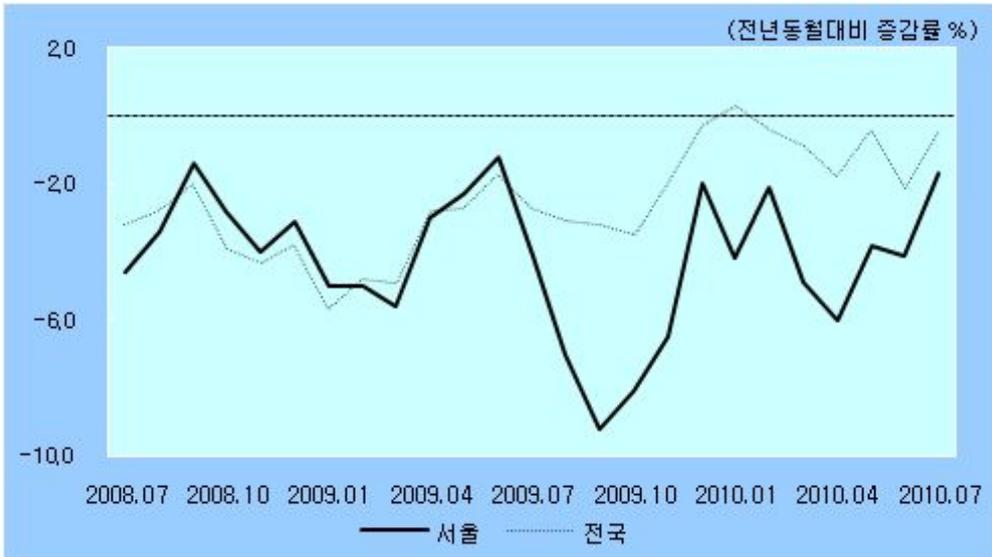
(단위: %)

구 분		2009년		2010년				
		7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취업자	서울	-2.2 (-0.6)	1.3 (0.4)	0.5 (0.9)	1.9 (1.6)	2.9 (1.4)	2.0 (-0.1)	3.1 (0.5)
	남자	-2.5 (-0.7)	0.9 (0.1)	0.9 (1.1)	1.0 (0.6)	0.6 (0.9)	0.5 (0.3)	2.0 (0.7)
	여자	-1.8 (-0.3)	1.7 (0.8)	0.1 (0.6)	3.1 (3.1)	6.0 (2.1)	4.1 (-0.6)	4.6 (0.2)
	전국	-0.3 (-0.6)	0.5 (0.0)	1.2 (2.2)	1.7 (2.3)	2.5 (1.6)	1.3 (-0.1)	2.0 (0.1)
청년층 취업자	서울	-4.1 (-0.7)	-2.1 (-1.1)	-4.9 (-3.0)	-6.0 (2.6)	-3.8 (4.4)	-4.1 (-1.2)	-1.7 (1.8)
	전국	-2.7 (1.4)	-0.4 (-2.3)	-0.9 (-1.8)	-1.8 (2.0)	-0.4 (3.1)	-2.1 (-1.9)	-0.4 (3.1)
고령층 취업자	서울	3.0 (-1.7)	6.7 (0.6)	9.4 (8.1)	13.6 (4.5)	16.2 (2.9)	7.8 (-0.4)	10.6 (0.8)
	전국	3.2 (-2.0)	-1.7 (3.0)	0.5 (12.7)	4.0 (9.4)	5.8 (4.8)	2.4 (0.9)	3.4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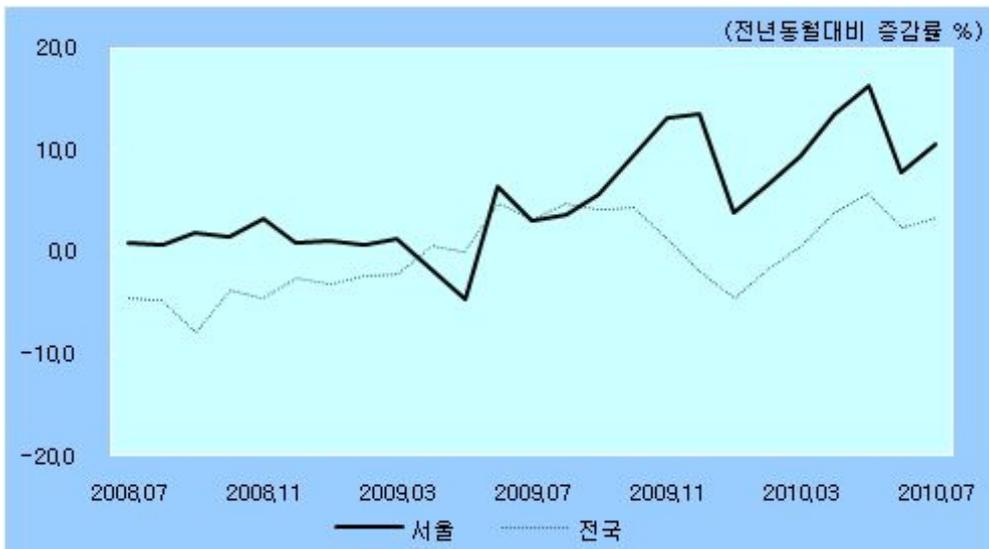
주: ()안은 전월비임. 청년층 취업자는 15세~29세임. 고령층 취업자는 60세 이상임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과 전국의 월별 취업자 증감률 추이



<그림> 서울과 전국의 월별 청년층(15~29세) 취업자 증감률 추이



<그림> 서울과 전국의 월별 고령층(60세 이상) 취업자 증감률 추이

■ 서울의 농림어업숙련종사자, 기능기계조작·단순종사자 등은 증가

- 직업별로 보면, 전년동월대비 농림어업숙련종사자 5천명(104.3%), 기능·기계조작·조립·단순종사자 174천명(13.7%), 사무종사자 18천명(2.1%)이 각각 증가
- 서비스·판매종사자 43천명(-3.4%), 전문·기술·행정관리자 3천명(-0.2%)이 각각 감소

■ 서울의 비임금근로자 전년동월대비 감소, 임금근로자 전년동월대비 증가

- 비임금근로자는 1,201천명이고, 임금근로자는 3,811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비임금근로자는 22천명(-1.8%)이 감소하였고, 임금근로자는 173천명(4.8%)이 증가
- 비임금근로자 중 자영업자는 전년동월대비 41천명(-3.9%)이 감소하였으나, 무급가족종사자는 19천명(11.6%)이 증가
-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는 전년동월대비 80천명(3.9%), 임시근로자는 114천명(9.8%)이 각각 증가하였으나, 일용근로자는 20천명(-4.4%)이 감소

■ 서울의 36시간 미만 취업자 전년동월대비 증가, 일시휴직자도 증가

- 취업시간대별로 보면, 36시간미만 취업자는 679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1천명(3.1%)이 증가하였고, 36시간 이상 취업자도 4,256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27천명(3.1%)이 증가
- 36시간 미만 취업자 중 1~17시간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9천명(4.0%) 증가하였고, 18~35시간 취업자도 11천명(2.6%)이 증가
- 36시간 이상 취업자 중 36~53시간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144천명(5.3%)이 증가하였고, 54시간 이상 취업자는 17천명(-1.2%)이 감소
- 일시휴직자는 78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천명(4.4%)이 증가
- 주당 평균 취업시간은 45.5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0.4시간 감소

〈표〉 산업별, 직업별, 종사상 지위별 취업동향

(단위: %)

구 분		2009년	2010년					
		7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산업별	제조업	-17.2 (-4.8)	0.3 (2.1)	-7.2 (3.2)	5.1 (3.1)	0.5 (-0.1)	5.1 (-0.4)	5.6 (-0.8)
	SOC 및 기타서비스업	0.8 (1.4)	1.4 (0.2)	1.6 (0.6)	1.5 (1.5)	3.2 (1.6)	1.7 (-0.1)	2.8 (0.6)
	사업·개인·공공서비스	6.6 (2.9)	0.0 (1.7)	1.9 (1.4)	2.8 (3.5)	4.5 (2.0)	2.0 (0.5)	3.3 (0.9)
	도소매·음식숙박	-1.0 (1.1)	3.2 (-1.2)	1.0 (-1.8)	-0.4 (-1.0)	2.8 (2.4)	-2.5 (-4.2)	-0.7 (1.9)
	전기·운수·통신·금융	-1.5 (-0.3)	6.6 (0.3)	6.7 (-0.8)	4.0 (0.7)	3.3 (0.0)	6.5 (2.8)	3.1 (-3.9)
	건설업	-13.6 (-1.4)	-9.3 (-2.4)	-7.5 (9.0)	-3.6 (2.4)	-2.2 (0.2)	5.2 (6.1)	13.1 (4.1)
직업별	전문·기술·행정관리자	3.0 (2.1)	-0.7 (-0.6)	0.6 (-0.3)	0.2 (2.0)	1.2 (0.0)	0.3 (1.1)	-0.2 (0.1)
	기능·기계작·조립·단순종사자	-8.6 (0.1)	3.4 (3.3)	2.9 (5.9)	10.6 (4.0)	10.4 (2.5)	10.0 (-0.2)	13.7 (1.2)
	서비스·판매종사자	-0.9 (0.8)	0.6 (-1.8)	-1.5 (-1.8)	-2.4 (-1.1)	-0.9 (1.5)	-4.7 (-3.0)	-3.4 (0.9)
	사무종사자	2.4 (-0.9)	2.4 (1.3)	-0.2 (-1.1)	-2.1 (1.3)	-0.3 (1.8)	2.7 (2.1)	2.1 (-0.7)
종사상 지위별	임금근로자	-1.0 (1.2)	0.7 (0.7)	-0.1 (1.0)	1.8 (2.0)	4.2 (2.3)	3.2 (0.1)	4.8 (0.8)
	비임금근로자	-2.8 (-0.6)	2.9 (-0.4)	2.6 (0.5)	2.3 (0.7)	-1.0 (-1.3)	-1.4 (-1.0)	-1.8 (-0.6)

주: ()안은 전월비임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 실·업·률 |

서울의 7월 실업률 전년동월대비 하락, 고용률 전년동월대비 상승

■ 서울의 7월 실업률 전년동월대비 하락

- 7월 실업자는 234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2천명(-4.8%)이 감소
- 성별로 보면, 남자는 150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6천명(-9.5%) 감소하였으나, 여자는 84천명으로 4천명(4.8%)이 증가
- 실업률은 4.5%로 전년동월대비 0.3%p 하락
- 성별로 보면, 남자는 5.0%로 전년동월대비 0.6%p 하락하였으나, 여자는 3.7%로 전년과 동일하게 나타났음

■ 전국의 7월 실업률 전년동월대비 증가

- 7월 실업자는 931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천명(0.4%) 증가
- 성별로 보면 남자는 597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2천명(-3.5%) 감소하였고, 여자는 334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5천명(8.1%) 증가
- 실업률은 3.7%로 전년동월과 보합
- 성별로 보면 남자는 4.1%로 전년동월대비 0.2%p 하락하였고, 여자는 3.2%로 전년동월대비 0.2%p 상승
- 계절조정 실업률은 3.7%로 전월대비 0.2%p 상승

■ 서울의 7월 고용률 전년동월대비 상승

- 서울의 7월 고용률은 59.7%로 전년동월대비 1.3%p 상승
- 성별로 보면, 남자는 70.0%, 여자는 50.1%로 전년동월대비 각각 0.9%p, 1.8%p 상승
- 서울의 고용률은 전국의 고용률(59.8%)에 비해 0.1%p 낮은 수준임
- 전국의 7월 고용률은 59.8%로 전년동월대비 0.4%p 상승
- 성별로 보면 남자는 71.1%로 전년동월대비 0.4%p 상승하였고, 여자는 49.1%로 전년동월대비 0.6%p 상승
- 60세미만 연령계층은 상승하였고, 60세이상은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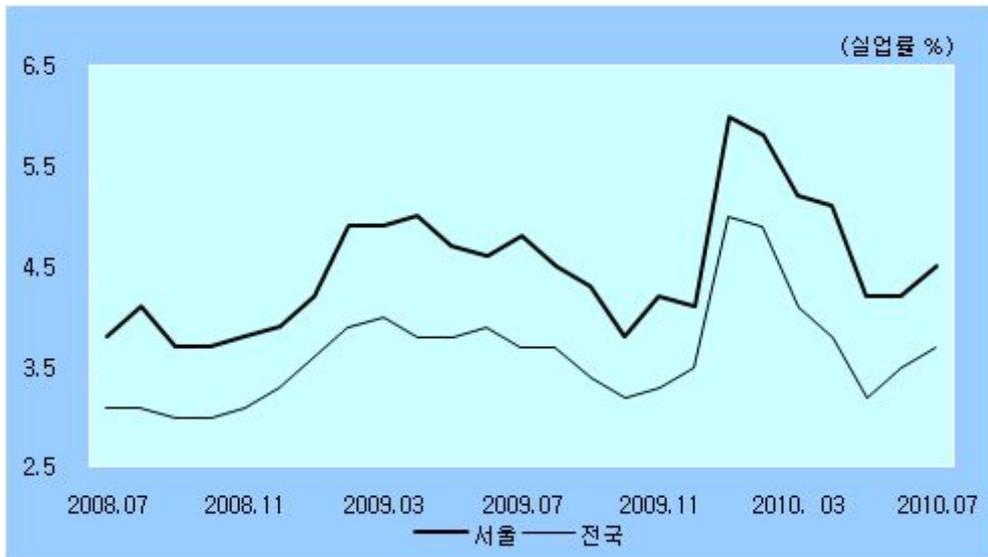
〈표〉 서울의 실업 동향

(단위: %)

구 분		2009년	2010년					
		7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실업률	서울	4.8	5.8	5.2	5.1	4.2	4.2	4.5
	남자	5.6	6.5	5.8	6.1	5.0	4.9	5.0
	여자	3.7	4.9	4.5	3.7	3.1	3.3	3.7
	전국	3.7	4.9	4.1	3.8	3.2	3.5	3.7

		2008년	2009년				2010년	
		2/4	1/4	2/4	3/4	4/4	1/4	2/4
청년층 실업률	서울	7.8	8.9	7.8	8.4	7.8	10.0	8.1
	전국	7.4	8.6	8.0	8.1	7.6	9.5	7.7
고령층 실업률	서울	2.2	2.0	3.2	2.0	1.7	7.2	4.3
	전국	1.2	1.6	1.9	1.6	1.5	5.8	2.1

주: ()안은 전월비임. 청년층 취업자는 15세~29세임. 고령층 취업자는 60세 이상임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과 전국의 실업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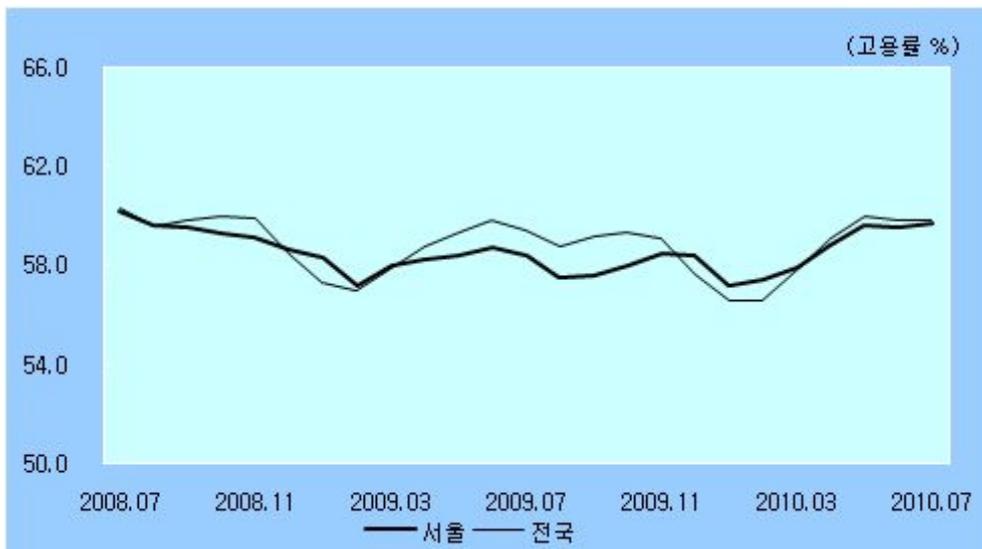
〈표〉 서울의 고용 동향

(단위: %)

구분		2009년	2010년					
		7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고용률	서울	58.4	57.4	57.9	58.8	59.6	59.5	59.7
	남자	69.0	67.7	68.4	68.8	69.3	69.5	70.0
	여자	48.3	47.7	48.0	49.4	50.4	50.0	50.1
	전국	59.4	56.6	57.8	59.1	60.0	59.8	59.8

		2008년	2009년			2010년		
		2/4	1/4	2/4	3/4	4/4	1/4	2/4
청년층 고용률	서울	46.4	43.9	45.6	43.8	42.8	42.8	44.1
	전국	41.9	39.9	41.1	40.7	40.1	40.1	40.8
고령층 고용률	서울	31.4	28.7	30.3	31.1	32.5	29.4	32.7
	전국	38.9	33.2	38.3	38.9	36.4	31.4	38.4

주: ()안은 전월비임. 청년층 취업자는 15세~29세임. 고령층 취업자는 60세 이상임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과 전국의 고용률 추이

| 건 · 설 · 경 · 기 |

서울의 6월 건설수주액 전년동월대비 감소

■ 서울의 6월 건설수주액 전년동월대비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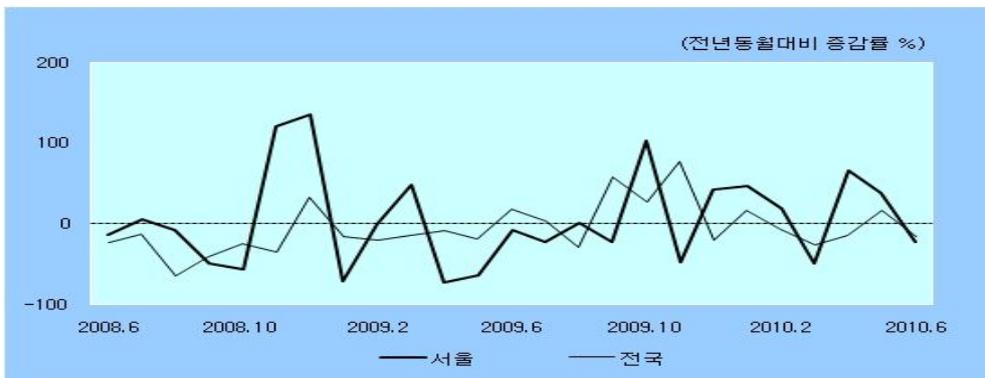
- 서울의 건설수주액은 1조 6,523억원으로 전년동월대비 21.9% 감소
- 전국의 건설수주액은 9조 8,774억원으로 전년동월대비 15.8% 감소
- 서울지역의 건설수주액은 전국대비 16.7%를 차지
- 공공부문에서는 신규주택 및 도로공사 등의 수주 증가로 전년동월대비 68.0% 증가, 민간 부문에서는 사무실 및 재개발 주택공사 등의 수주 감소로 전년동월대비 32.7% 감소
- 공종별로는 건축부문이 27.7% 감소, 토목부문이 66.1% 증가

〈표〉 건설수주액

(단위: 십억 원, %)

구 분	2009년	2010년					전년 동월비 증감률	전월 대비 증감률	
	6월	2월	3월	4월	5월	6월			
서울	2,116	1,293	891	1,032	1,481	1,652	-21.9	11.5	
발주 자별	공공	197	362	213	58	26	331	68.0	1173.1
	민간	1,846	931	606	973	1,430	1,243	-32.7	-13.1
공종 별	건축	1,987	1,094	705	944	1,406	1,437	-27.7	2.2
	토목	130	199	186	88	75	215	66.1	186.7
전국	11,728	4,615	5,590	6,418	8,354	9,877	-15.8	18.2	

주: 발주자별 수주액은 국내외국기관, 민자공사 수주액이, 공종별 수주액은 전문공사 수주액이 제외된 수치임
 자료: 서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과 전국의 건설수주액 추이

| 주 · 택 · 매 · 매 · 가 · 격 |

서울의 7월 주택매매가격 4개월 연속 하락세 지속

■ 전국의 7월 주택매매가격 16개월 만에 하락 반전

- 7월 전국의 주택매매가격은 부동산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로 관망세가 이어지면서 2009년 3월 이후 16개월만에 전월대비 하락으로 전환

■ 서울 7월 주택매매가격 4개월 연속 하락세 지속

- 서울(-0.3%)의 주택매매가격은 지난해부터 지속된 금융규제 강화와 보금자리주택, 장기전세주택 공급에 대한 기대감, 재건축 아파트 약세에 따른 매수심리 위축으로 4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감

〈표〉 매매가격 지수 증감률

(2008.12=100.0, 단위: %)

구 분	2009년		2010년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전월대비 증감률
	7월	6월	6월	7월		
서울	100.4	102.5	102.5	102.1	1.7	-0.3
아파트	100.6	101.8	101.8	101.3	0.7	-0.5
지역별 주택매매						
강북	99.8	101.6	101.6	101.3	1.5	-0.3
강남	100.9	103.3	103.3	102.9	2.0	-0.4
전국	99.7	102.4	102.4	102.3	2.7	-0.1

자료: 국민은행연구소

■ 강북지역 4개월 연속 하락세

- 강북지역(-0.3%)은 광진구와 중구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하락하며 4개월 연속 하락세를 지속한 가운데 도봉구(-0.7%), 강북구(-0.6%), 마포구(-0.5%), 노원구(-0.5%)가 하락을 주도함
- 도봉구는 보금자리주택 및 장기전세주택을 기대하는 수요 등으로 매수세가 위축된 가운데 인근지역인 남양주 진접지구나 미아뉴타운, 길림뉴타운 등으로 입주하는 세대의 급매물이 증가하면서 아파트를 중심으로 하락함
- 강북구는 부동산 경기침체로 매수관망세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미아뉴타운, 길림뉴타운 등 입주물량 증가로 매물이 적체되면서 하락함

■ 강남지역 세 달 연속 하락세 지속

- 강남지역(-0.4%)은 전 지역에서 하락하며 세 달 연속 하락세를 지속함. 양천구(-0.9%), 영등포구(-0.7%), 강서구(-0.7%), 구로구(-0.6%) 등의 하락세가 두드러짐
- 양천구는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주택 담보대출 금리 상승으로 부동산 시장의 경기침체가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매수심리는 더욱 위축되는 모습. 매수세가 전무한 가운데 급매물이 증가하며 목동, 신정동 등 신시가지를 중심으로 가격이 하락함
- 영등포구는 주택가격 하락에 대한 우려감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DTI 규제, 보금자리주택, 장기 전세주택 등의 영향으로 매수세가 위축되어 하락함

■ 서울의 7월 아파트 평당 매매가격 4개월 연속 하락

- 서울의 아파트 평당 매매가격(7월 30일 기준)은 1,809.89만원으로 전월(1,817.49만원) 대비 크게 하락
- 서울 아파트의 평균 평당 매매가격을 상회하는 구는 강남구(3,320만원), 서초구(2,855만원), 용산구(2,573만원), 송파구(2,387만원), 양천구(1,941만원), 광진구(1,882만원), 강동구(1,870만원) 등 순으로 나타났음
- 서울 아파트의 평균 평당 매매가격에 하회하는 구는 금천구(1,021만원), 도봉구(1,108만원), 중랑구(1,130원), 강북구(1,146만원) 등 순으로 나타남

| 주 · 택 · 전 · 세 · 가 · 격 |

서울 7월 주택전세가격 강북지역 보합으로 전환, 강남지역 상승폭 축소

■ **전국의 7월 주택전세가격 지방지역을 중심으로 강세 지속**

- 전국의 주택전세가격은 방학 이사철을 맞아 지방지역을 중심으로 한 수급불균형이 심화되면서 전월대비 0.3% 상승
- 서울(0.1%)은 강북지역(0.0%)이 작년 3월 이후 16개월 만에 보합으로 전환되었고, 강남지역(0.1%)도 전국평균을 하회하며 상대적인 안정세를 보인 반면 기타지방(0.5%)과 광역시(0.1%)는 상대적인 강세를 이어감

■ **서울 7월 강북지역 16개월 만에 보합으로 전환, 강남지역 상승폭 축소**

- 강북지역(0.0%)에서는 서대문구(0.7%), 용산구(0.5%) 등에서 상승하였고, 도봉구(-0.5%), 은평구(-0.4%) 등에서 하락하며 작년 3월 이후 16개월 만에 보합으로 전환됨
- 서대문구는 7월까지 이주완료 예정인 북아현 뉴타운 1-3구역 이주수요와 명동, 신촌 등 도심업무지구로의 출퇴근이 용이해 직장인 수요가 꾸준히 유입되는 가운데 부동산 가격 침체로 매매보다 전세로 선회하는 수요 증가로 상승함
- 도봉구는 인근 길음뉴타운, 미이뉴타운 입주물량의 영향으로 물량이 적체되면서 중대형 아파트를 중심으로 하락함. 은평구(-0.4%)는 불광동 북한산 힐스테이트 1차의 입주 2년 도래로 전세만기물량이 출시되고 있는 가운데 은평 뉴타운 6월 입주 물량과 8, 9월 입주 예정인 불광 재개발지구 물량 대기 등의 영향으로 아파트를 중심으로 하락함
- 강남지역(0.1%)에서는 영등포구(0.5%), 서초구(0.3%)가 상승을 주도하였고, 동작구(-0.2%), 금천구(-0.1%) 등에서는 전월대비 하락함
- 영등포구는 교통환경이 편리하여 여의도 도심업무지구로의 직장인 수요와 신혼부부 수요가 꾸준한 가운데 도림 16구역 이주수요로 전세물량이 부족하여 가격이 상승함. 서초구는 여름방학을 앞둔 학군 이동수요와 교통이 편리한 역세권 주변 신혼부부 수요로 물량이 부족하여 가격이 상승함

〈표〉 전세가격 지수 증감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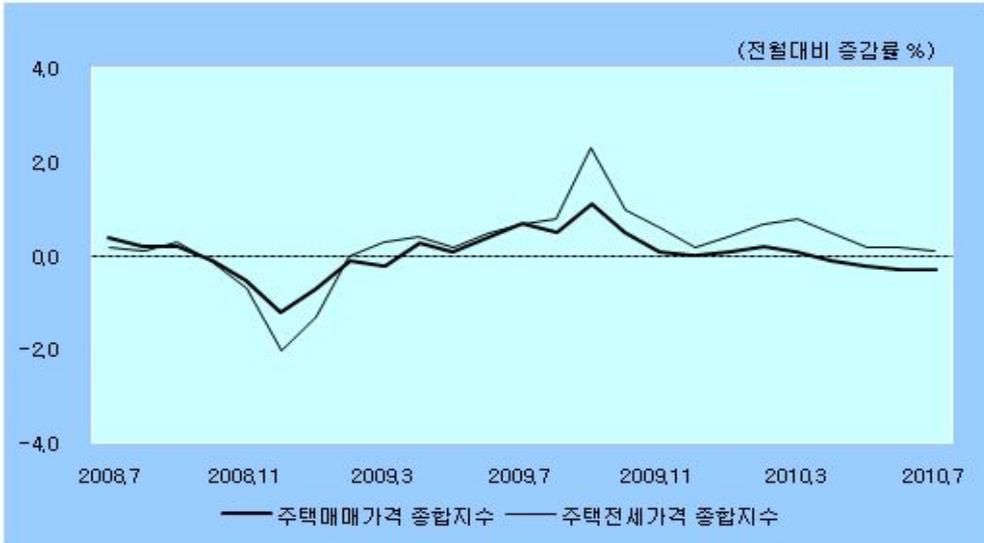
(2008.12=100.0, 단위: %)

구 분	2009년	2010년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전월대비 증감률
	7월	6월	7월		
서울	100.9	109.0	109.1	8.1	0.1
아파트	101.8	111.6	111.6	9.6	0.1
지역별 주택전세					
강북	99.9	106.5	106.5	6.7	0.0
강남	102.0	111.5	111.6	9.4	0.1
전국	99.9	106.6	106.8	6.9	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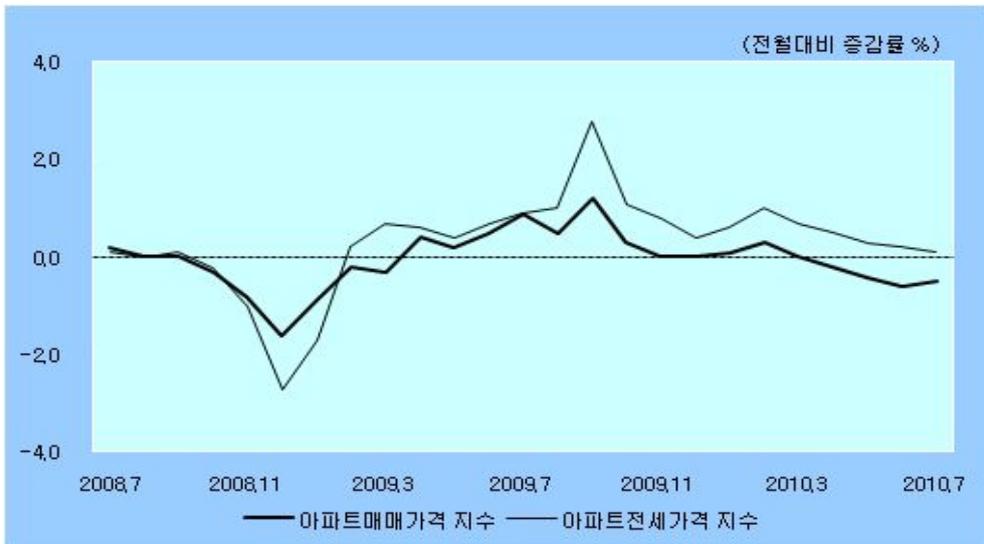
자료: 국민은행연구소

■ 서울의 7월 아파트 전세가격/매매가격 비율 전월대비 소폭 상승

- 7월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매매가격 비율은 42.3%로 전월(42.1%)보다 0.2%p 상승하여 지속적인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음
(2010년 1월 40.7% → 2월 41.0% → 3월 41.3% → 4월 41.5% → 5월 41.8% → 6월 42.1%)
- 서울의 아파트 전세가격/매매가격 비율은 전국 평균 55.5%보다 13.2%p 낮은 수준이며, 전국과의 격차 전월(13.1%p)보다 소폭 상승
- 지역적으로 보면 그 비율은 강북 44.8%, 강남 40.3%로 강남과 강북의 격차는 4.5%p이며 지난 달에 비해 소폭 하락한 수준. 지난 몇 달간 강남북간 격차는 줄어들었다가 늘어나는 추세를 반복하고 있음



<그림> 서울의 주택매매가격 및 주택전세가격 지수 추이



<그림>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격 및 아파트 전세가격 지수 추이

| 시 · 중 · 자 · 금 · 사 · 정 |

국고채 금리 7월 중 크게 상승하였다가 다시 상당 폭 하락

- 국고채 금리 7월 중 크게 상승 후 다시 상당 폭 하락
 - 7월 중 국고채(3년) 금리는 국내 경제성장률 전망치 상향조정, 물가상승압력 증대 예상 등으로 4%에 근접하는 수준까지 상승하였다가 월 중반이후 미국 및 중국의 경기둔화 우려, 양호한 수급여건 전망, 외국인의 국내 채권투자 확대 등으로 상당 폭 하락
 - 7.9일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은 인상기대의 선반영으로 국고채 금리의 추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지는 않았음
 - 8월 들어서는 한국은행 기준금리 추가 인상에 대한 경계감, 외국인 국채선물 순매도 등의 영향으로 재상승
- 회사채 금리도 국고채 금리와 비슷하게 등락
 - 회사채(3년) 금리도 국고채 금리와 비슷하게 등락하는 모습
 - CD(91일) 금리는 기준금리 인상의 영향으로 2.63%로 17bp 상승
- KOSPI 지수 7월 상승세 지속
 - 7월 중 코스피는 경제성장률 전망치 상향조정, 2/4분기 기업실적 호조, 남유럽국가 재정 위기 우려 완화 등으로 오름세 지속
(4월말 1,742p → 5.25일 1,561p → 5월말 1,641p → 6월말 1,698p → 7월말 1,759p)
- 외국인 순매수 7월 중 규모 확대
 - 7월 중 외국인은 국내주식 순매수 규모를 확대하면서 추가상승을 견인
외국인 순매수(조원): → 3월 5.4조원 → 4월 5.5조원 → 5월 -6.3조원
→ 6월 0.6조원 → 7월 3조원

<표> 주요 금융지표 추이

(기간 중 평균, 단위: %, %p)

구 분		2009년	2010년					전월대비 증감 (B-A)
		7월	4월	5월	6월(A)	7월(B)	8.26일	
금리	국고채(3년)	4.09	3.77	3.70	3.75	3.88	3.54	0.05
	CD(91일물)	2.41	2.51	2.45	2.45	2.58	2.63	0.00
	콜금리(1일)	1.93	2.00	2.01	2.00	2.21	2.28	-0.01
	장단기 금리차 ¹⁾	1.68	1.26	1.25	1.30	1.30	0.91	0.05
주 가	KOSPI	1460.03	1730.29	1,648.30	1,691.94	1,731.12	1,729.76	43.64
	KOSDAQ	496.39	512.86	497.85	493.3	490.97	464.53	-4.55
환율 (W/US\$)		1,261.96	1,115.71	1,168.41	1,214.02	1,204.94	1,190.00	45.61

주: 장단기 금리차 = 국고채-CD

자료: 한국은행

■ 은행 가계대출 7월 중 전월대비 증가규모 축소

- 7월 중 은행 가계대출은 전월에 비해 증가규모가 축소
- 마이너스통장대출 등이 하계 휴가비 및 성과급 지급 등으로 감소한 데 주로 기인
- 주택담보대출(모기지론양도 포함)은 낮은 대출금리 수준, 은행의 확대노력 집단대출 증가, 주택금융공사 신규대출상품 출시 등으로 견조한 증가세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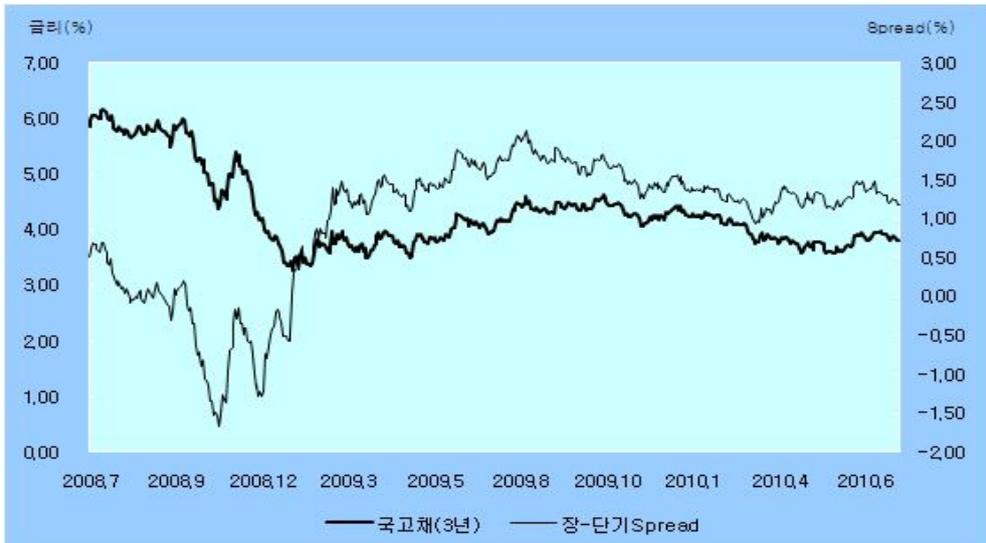
<표> 가계대출 증감 추이

(기간 중 말잔 증감, 단위: 조 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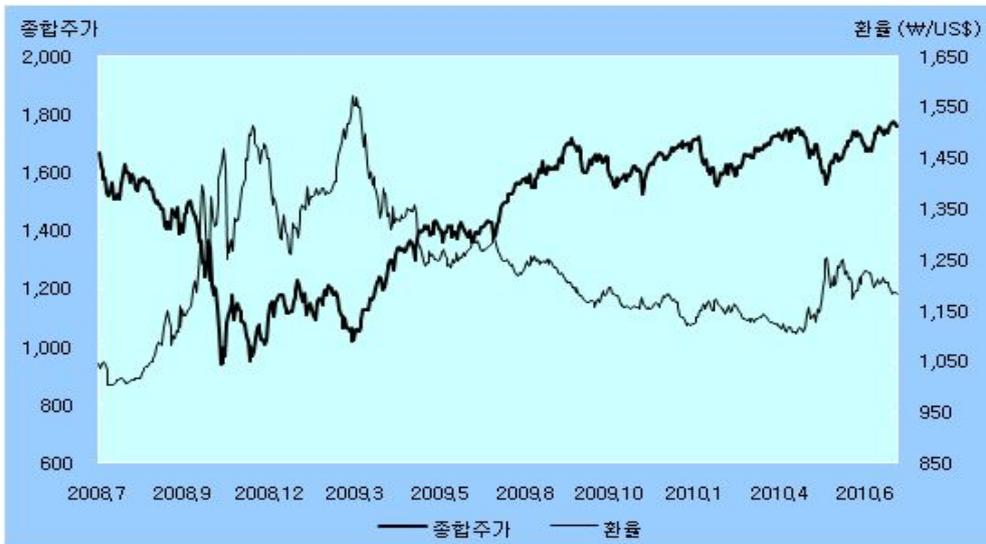
구 분	2009년	2010년					월말잔액		전월대비 증감률
	연중	3월	4월	5월	6월	7월	2010년		
							6월	7월	
가계대출 ¹⁾	20.1	1.9	1.7	4.4	2.5	1.5	417.9	419.3	0.34
주택담보대출 ²⁾	25.4	2.5	1.8	1.7	2.5	2.2	273.2	275.4	0.81
마이너스통장대출 등	-4.5	-0.6	0.0	2.7	0.0	-0.8	143.7	142.9	-0.56

주: 1) 종별대출은 신탁 제외 2) 주택자금대출 포함

자료: 한국은행



<그림> 주요 금리추이



<그림> 종합주가 및 환율 추이

■ 서울지역 6월 대출금 잔액 전월대비 감소

- 6월 서울지역 금융기관 대출금 잔액은 514조 5,707억원 규모로 전월대비 1조 8,166억원 (-0.35%) 감소
- 6월 전국의 금융기관 대출금 잔액은 1,285조 8,082억원으로 전월대비 1조 1,083억원 (-0.09%) 감소

〈표〉 서울시 금융기관¹⁾ 대출금 잔액 추이

(말잔, 단위 : 십억 원, %)

		2010년					전월대비 증감액	전월대비 증감률
		2월	3월	4월	5월	6월		
서울	예금은행	947,207.90	415,746.7	419,168.0	421,795.5	421,874.9	79.4	0.02
	비은행기관	286,925.10	93,318.7	94,887.5	94,591.8	92,695.8	-1,896.0	-2.00
	합계	1,234,133.00	509,065.4	514,055.5	516,387.3	514,570.7	-1,816.6	-0.35
전국	예금은행	416,976.60	962,695.9	967,784.2	974,047.5	975,225.8	1,178.3	0.12
	비은행기관	85,866.80	308,949.1	310,865.2	312,869.0	310,582.4	-2,286.6	-0.73
	합계	502,843.40	1,271,645.0	1,278,649.4	1,286,916.5	1,285,808.2	-1,108.3	-0.09

주: 1) 예금은행과 비은행금융기관(한국수출입은행, 종합금융회사, 신탁회사, 상호저축은행,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을 합한 예금취급기관 기준, 생명보험사 및 증권금융은 제외됨

| 신 · 설 · 법 · 인 · 동 · 향 |

서울 6월 신설법인 수 전년동월대비 감소

■ 서울 6월 신설법인 수 전년동월대비 감소

- 6월 서울의 신설법인 수는 1,871개로 전년동월대비 7.3%(148개) 감소하였고, 전월대비로는 12.1%(202개) 증가
- 6월 전국의 신설법인 수는 5,448개로 전년동월비로는 1.0%(55개) 증가하였고, 전월비로는 19.3%(883개) 증가. 신설법인 전년동월비는 2009년 6월부터 13개월 연속 증가세 유지

■ 서울 6월 모든 업종 신설법인 수 전년동월대비 감소

- 6월 중 서비스업은 전년동월대비 8.7%(134개) 감소, 제조업이 5.7%(18개) 감소하였고, 건설 및 설비업은 16.6%(25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모든 업종에서 신설법인수는 전년동월대비 감소하였으며 건설 및 설비업의 감소가 가장 뚜렷하게 나타남

〈표〉 산업별 신설업종

(단위: 개소, %)

구분	2010년					전월비		전년동월비	
	2월	3월	4월	5월	6월	증감	증감률	증감	증감률
서울	2,019	2,044	1,946	1,669	1,871	202	12.1	-148	-7.3
서비스업	1,546	1,539	1,513	1,286	1,412	126	9.8	-134	-8.7
제조업	318	342	283	257	300	43	16.7	-18	-5.7
건설 및 설비업	151	158	141	120	126	6	5.0	-25	-16.6
전국	5,393	5,652	5,508	4,565	5,448	883	19.3	55	1.0

자료: 중소기업청

| 어 · 음 · 부 · 도 · 율 |

서울 6월 어음부도율 전월과 같은 수준 유지

- 서울의 6월 어음부도율 전월과 같은 수준, 신설/부도법인 비율 상승
 - 6월 중 서울의 어음부도율은 0.03%로 전월과 같은 수준, 전국의 어음부도율은 0.04%로 전월대비 상승
 - 서울의 부도업체 수는 42개로 전월대비 6.7%(3개) 감소, 전국의 부도업체 수는 122개로 전월대비 1.7%(2개) 증가한 수준
 - 서울의 신설법인/부도법인 비율은 52.0배로 전월(42.8배)보다 상승하였고, 전국의 신설법인/부도법인 비율은 58.6배로 전월(47.6배)보다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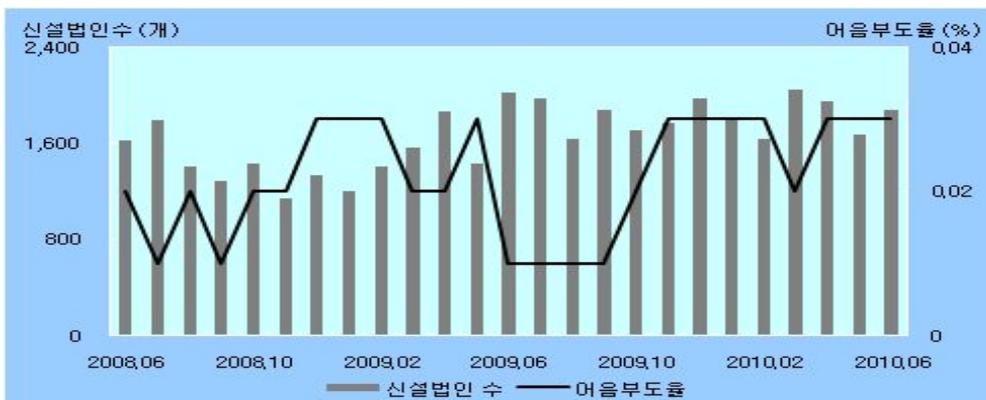
〈표〉 어음부도율 및 부도업체 수

(단위: 개소, %, %p)

구 분	2009년	2010년				전월비		
	6월	3월	4월	5월	6월	증감	증감률	
서울	어음부도율	0.01	0.02	0.03	0.03	0.03	0.00	0.0
	부도업체 수	51	48	41	45	42	-3	-6.7
	신설/부도법인비율	50.5	55.2	55.6	42.8	52.0	9.2	-
전국	어음부도율	0.02	0.02	0.03	0.03	0.04	0.01	33.3
	부도업체 수	125	144	125	120	122	2	1.7
	신설/부도법인비율	64.2	53.3	60.5	47.6	58.6	11.0	-

주: 어음부도율은 전자결제 조정 후 수치임, 부도업체 수는 당좌거래정지업체 기준임

자료: 한국은행, 중소기업청



자료: 한국은행, 중소기업청

〈그림〉 서울의 창업 및 어음부도율 동향

| 신 · 용 · 보 · 증 · 동 · 향 |

서울 7월 소상공인에 대한 보증공급 활발

■ 보증지원 금액 및 건수 감소

- 서울신용보증재단을 통한 서울시 신용보증은 7월중 6,814건, 102,529백만원으로 전월 대비 보증건수 7.45% 감소, 보증금액 22.8% 감소하였으며, 건당 평균지원금액은 전월 대비 16.7% 감소. 또한 전년 동월대비 보증지원 건수는 37.7% 감소, 금액은 46.3% 감소

〈표〉 월간 신용보증 추이

(단위: 건, 백만원, %)

구 분	2009년	2010년					전월비		(전년동월비)	
	7월	3월	4월	5월	6월	7월	증감	증감률	증감	증감률
건수	10,944	6,580	7,004	5,791	7,362	6,814	-548	-7.45	-4,130	-37.7
금액	190,971	131,380	139,032	117,045	132,810	102,529	-30,281	-22.8	-88,442	-46.3
건당평균금액	17.4	20.0	19.9	20.2	18.0	15.0	-3.0	-16.7	-2.4	-13.8

주: 전년동월비는 부지표임

자료: 서울신용보증재단

■ 서비스업종 보증지원을 상승

- 7월 도소매업종에 대한 보증지원 비중이 공급금액기준 35.5%로 전월(41.3%) 대비 5.8%p 감소한 반면, 서비스업종에 대한 지원은 30.0%로 전월(24.6%) 대비 5.4%p 증가. 보증건수 기준 시 도소매업종은 30.6%로 전월(33.0%) 대비 2.4% 감소, 서비스업종은 38.9%로 전월(35.8%) 대비 3.1% 증가

〈표〉 월간 업종별 신용보증 현황

(단위: 건, 백만원, %)

구 분	제조업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서비스업	기타	합계
건수	445	2,082	1,061	2,651	575	6,814
비율	6.5	30.6	15.6	38.9	8.4	100
금액	7,972	36,440	16,559	30,714	10,845	102,530
비율	7.8	35.5	16.1	30.0	10.6	100

자료: 서울신용보증재단

■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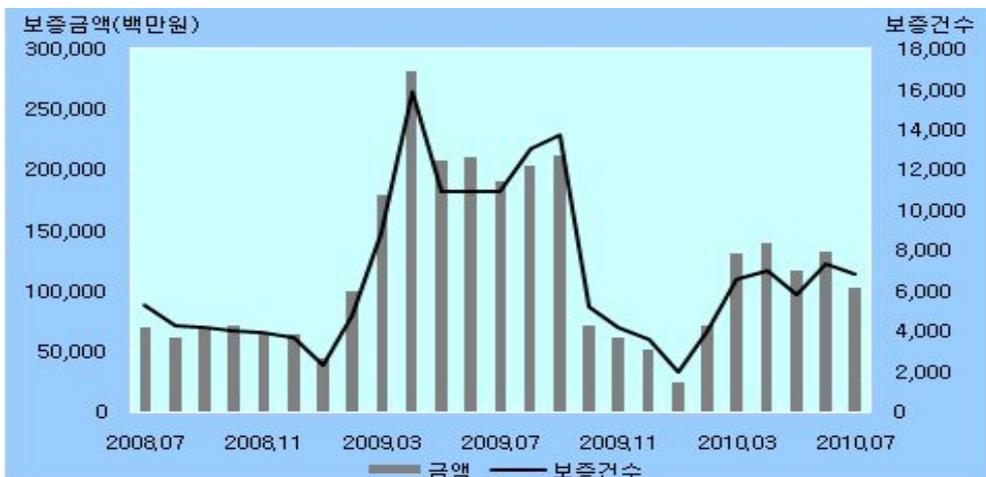
- 7월중 기업규모별 신용보증지원 비중은 소상공인 지원이 금액기준 92.9%로 전월(86.3%) 대비 6.6%p 증가하였으며, 건수기준 98.2%로 전월(97.4%) 대비 0.8%p 증가를 보였음. 소상공인에 대한 신용보증지원은 건수기준으로 3개월 연속 증가하였으며, 지난 6월 감소세를 보였던 보증지원금액 비중도 다시 증가
- 반면 소기업 지원 비중은 금액기준 4.9%로 전월(9.4%) 대비 4.5%p 감소하였고, 건수기준 1.4%로 전월(2.1%) 대비 0.7%p 감소함. 또한 중기업 지원 비중은 금액기준 2.2%로 전월(4.3%) 대비 2.1%p 감소, 건수기준으로는 0.4%로 전월(0.6%) 대비 0.2%p 감소

<표> 월간 기업규모별 신용보증 현황

(단위: 건, 백만원, %, %p)

구분		2010.5	2010.6	2010.7	전월대비증감
소상공인	건수	5,583	7,167	6,689	-478
	비율	96.4	97.4	98.2	0.8
	금액	104,467	114,552	95,225	-19,327
	비율	89.3	86.3	92.9	6.6
소기업	건수	160	154	98	-56
	비율	2.8	2.1	1.4	-0.7
	금액	8,360	12,546	5,067	-7,479
	비율	7.1	9.4	4.9	-4.5
중기업	건수	47	41	27	-14
	비율	0.8	0.6	0.4	-0.2
	금액	4,220	5,715	2,238	-3,477
	비율	3.6	4.3	2.2	-2.1
합계	건수	5,791	7,362	6,814	-548
	비율	100	100	100	0
	금액	117,045	132,810	102,530	-30,280
	비율	100	100	100	0

자료: 서울신용보증재단



<그림> 서울의 보증금액 및 보증건수 동향

| 수 · 출 · 입 · 동 · 향 |

서울의 7월 수출입 전년동월대비 증가

■ 서울의 7월 수출입 전년동월 대비 증가

- 7월 서울의 수출은 40.9억 달러로 전년동월대비 33.1% 증가하였고, 수입은 89.6억 달러로 36.1% 증가
- 7월 전국의 수출은 409.5억달러로 전년동월대비 28.3% 증가하였고, 수입은 354.4억 달러로 28.0% 증가

■ 서울의 7월 수출 1순위는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 수입 1순위는 석유제품

- 서울의 품목별 수출의 경우,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가 468,335천 달러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고 다음은 자동차부품, 편직물, 반도체 등 순
- 서울의 품목별 수입의 경우, 석유제품이 가장 많아 756,953천 달러에 달하였으며, 다음은 반도체, 컴퓨터, 항공기 및 부품 등 순
- 전년동월대비 증가율이 가장 높은 품목은 수출의 경우 철강관 및 철강선으로 전년동월대비 718.9% 증가, 수입의 경우 항공기 및 부품으로 전년동월대비 427.2% 증가

〈표〉 수출입

(단위: 백만 불, %)

구 분		2009년	2010년					전년동월비	
		7월	3월	4월	5월	6월	7월	증감	증감률
서울	수출	3,073	3,644	3,770	3,924	4,256	4,090	1,017	33.1
	수입	6,585	8,756	8,924	8,499	8,746	8,960	2,375	36.1
전국	수출	31,908	37,450	39,433	39,099	41,921	40,949	9,041	28.3
	수입	27,680	35,632	35,378	34,971	35,493	35,443	7,763	28.0

자료: 무역협회

〈표〉 서울의 품목별 수출

(단위: 천불, %)

순위	품목명	2009년 7월		2010년 7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합계	3,073,055	-0.5	4,089,528	33.1
1	평판디스플레이및센서	59,355	75.9	468,335	689.0
2	자동차부품	174,030	106.6	353,847	103.3
3	편직물	214,026	23.1	247,708	15.7
4	반도체	172,409	70.0	226,812	31.6
5	철강관 및 철강선	23,727	-61.2	194,295	718.9
6	합성수지	147,458	100.2	165,367	12.1
7	무선통신기기	126,943	-13.0	154,322	21.6
8	고무제품	128,086	34.8	137,631	7.5
9	합성고무	69,372	185.4	121,947	75.8
10	의류	93,644	9.5	103,277	1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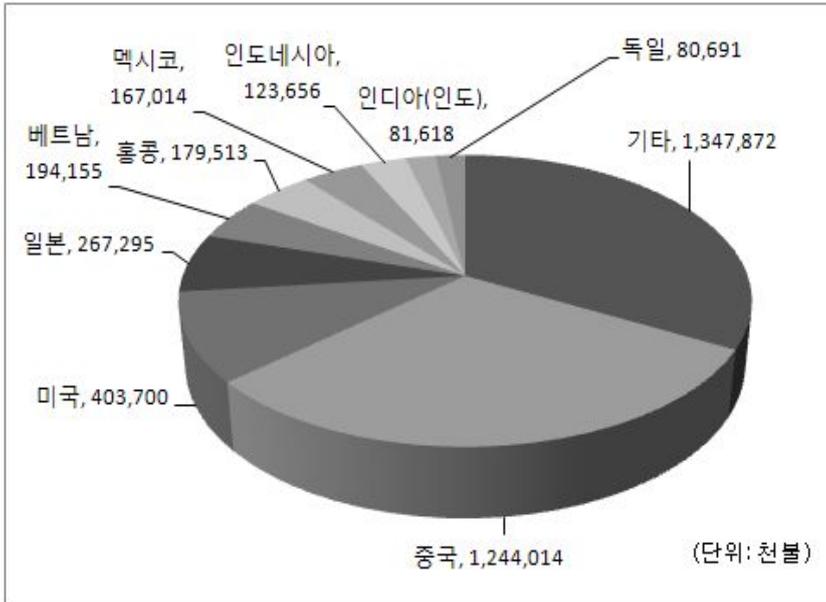
자료: 무역협회

〈표〉 서울의 품목별 수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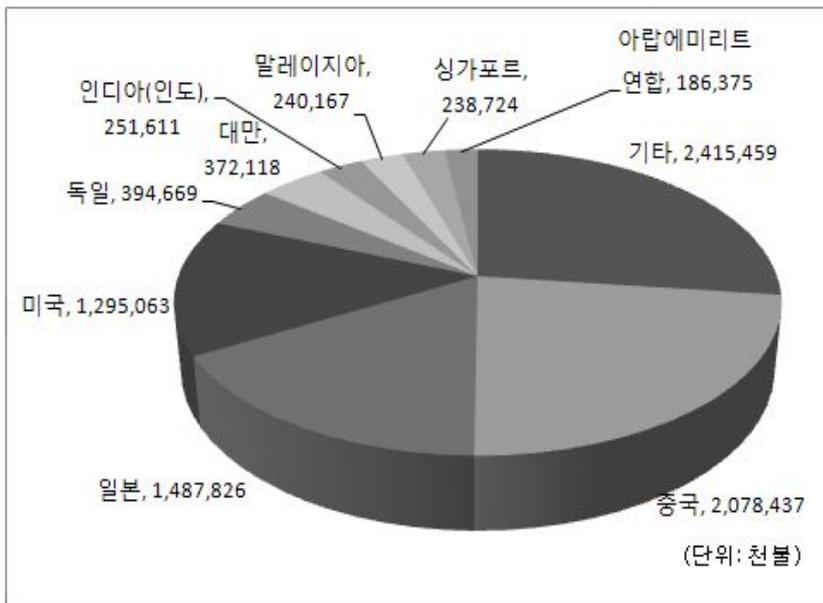
(단위: 천불, %)

순위	품목명	2009년 7월		2010년 7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합계	6,584,936	-21.1	8,960,449	36.1
1	석유제품	279,831	531.0	756,953	170.5
2	반도체	713,846	66.8	747,329	4.7
3	컴퓨터	410,196	-1.1	508,038	23.9
4	항공기 및 부품	70,219	-25.0	370,224	427.2
5	선박해양 구조물 및 부품	288,252	132.0	250,166	-13.2
6	의류	206,602	12.1	249,282	20.7
7	플라스틱제품	210,691	198.3	244,831	16.2
8	자동차	89,288	-24.0	229,577	157.1
9	평판디스플레이및센서	169,626	119.5	215,119	26.8
10	농약 및 의약품	141,133	26.9	211,092	49.6

자료: 무역협회



<그림> 서울의 국가별 수출



<그림> 서울의 국가별 수입